

‘차별대우’ 포함, 성역할 편견 탈피 모색

사내 통신망, 응답시스템 설치해 성희롱 신고 접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까?”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호그룹(회장 박성용) 사내 전자통신망 텔레피아(TELEPIA)에 한 남성사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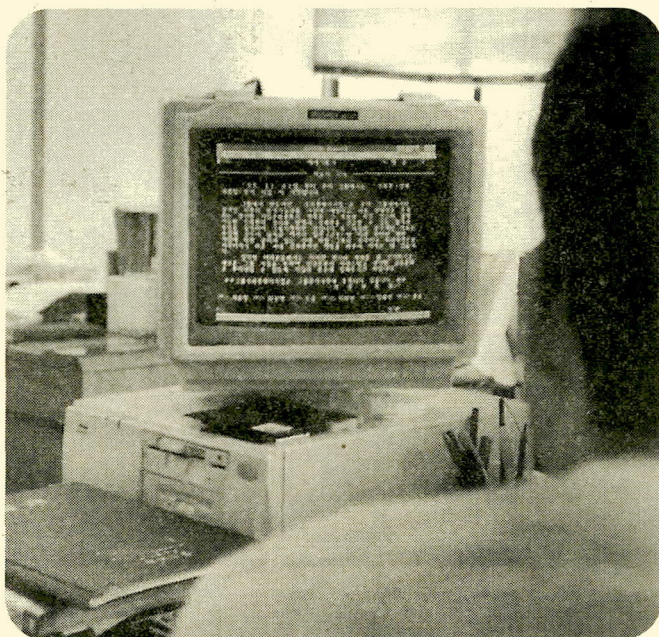
텔레피아를 통해 곧바로 회신이 보내졌다.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는 자칫 친근감의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분명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과 성차별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측은 미래 정보화사회를 대비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성역할 고정인식 변화정책은 성희롱 방지 지침 뿐 아니라 사내 차별대우 금지 또한 포함된다고 답신했다. 업무 부여, 임금, 승급 체계, 결혼 후 업무, 직무분리 등의 차별대우도 성희롱 신고와 마찬가지로

텔레피아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호그룹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성희롱 방지 지침’은 여성사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박성용 회장의 지시 이후 1년6개월만에 가시화된 정책이다. 금호그



금호그룹은 24시간 개방되는 사내 통신망 텔레피아(TELEPIA)를 개설, 성희롱 신고 접수는 물론 사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룹은 올해부터 신입사원 연수교육시 ‘성희롱 방지 지침’ 교육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사내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교육시킨다는 방침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로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경력, 급여,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

신고 접수시 인사위서 중재 등 조치

홍보교재 이미 배포, 단체협약등 보완기로

이라 밝혔다.

텔레피아와 별도로 직장내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와 발생 시 처리절차, 당사자들의 유의사항 등을 담은 교재도 이미 배포한 상태.

이 교재에 따르면 성희롱은 사업장이나 업무가 연결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장소나 관계하에서

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언사, 몸짓,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또 성희롱의 구체적 형태는 불쾌한 성적표현의 농담 및 음담패설, 고의적인 신체 접촉, 강압적인 교제 요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껴안거나 팔, 어깨 등을 움켜잡는 행위, 음란

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 회식장소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음란서적이나 사진 등을 사무실내에 비치하는 등의 성적표현이 잠재된 행동,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낀다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표현이 잠재된 언사 등으로 규정했다.

‘성희롱 방지 지침’은 24시간 개방돼 있는 텔레피아나 무인응답시스템(ARS System)에 신고가 접수되면 각 사 인사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해 중재하고 필요시에는 공개사과 또는 각서 등을 통한 1차 조치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범죄 행위’임이 농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판결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보 또는 해고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텔레피아를 통해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한편 금호그룹은 전그룹사 여사원 3천1백명 가운데 9백명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5%인 2백25명이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이중 불쾌한 성적농담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 38%, 불쾌한 몸짓 22%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앞으로 여사원이 능력을 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관련 조항을 보완키로 했다고 전했다.

(손정미 기자)